

신안 잇단 연육·연도교 개설…지역경제 활기

암해~암태 등 10개면 연결 사업 속속 추진

신선한 농수산물 공급…물류비도 크게 절감

신안군의 10개면 도서 연육·연도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지역 농수산업의 경제성장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1004개의 섬 14개 읍·면으로 구성된 신안군에는 4만 5000여 명의 인구 대부분이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어민들은 그동안 도서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

으로 신선도와 물류비 부담은 물론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연육·연도교의 잇따른 개설로 인해 이 같은 고통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2018년을 목표로 한 암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국도 2호선 연장 7.26km의 새천년대교 건설 사업이 현재 20%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올 예산

이 당초 31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30억원의 시설설계비가 확보된 암태 추포와 비금 간 7.55km의 연육도가 준공되면 도초면~비금면~안좌면~팔금면~자은면~암태면~암해읍~목포(무안)의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 암해 북통과 무안 운남을 잇는 0.925km의 연륙교도 올해 말 개통할 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임자와 지도읍과의 1.92km의 연육교도 올해에만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오는 7월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시설설계 중인 암해읍 감정리 선착장~해남화원간 77호선이 개통되면 신안 교통망의 주축이 형성될 것으로 군은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연도·연륙교가 확충되면 신안군은 14개 읍·면 중 증도~임자도~지도읍이 무안으로, 도초~비금~안좌~팔금~자은~암태~암해읍이 목포(무안)로 연결되면서 10개 읍면이 육지와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태풍 등의 선박 운항 결항 시마다 밤이 뉘었던 도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정지역인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과 양파, 마늘, 시금치, 김 등 각종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어 신선도 유지와 함께 운송비 절감도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항후 하의도와 신의도, 장산도 연도교 사업이 시작되면 신안은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읍면 모두가 육지와 연결돼 도서민들은 전국 단일권 생활은 물론, 천혜의 관광 자원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직원 소통 중시하는 목포시

음악공연·주요현안 이슈 주제발표

정례조회 틀깨 직원상호 화합 유도

목포시가 매달 실시하는 정례 회의를 올해부터는 ‘해설이 있는 음악공연’과 ‘시정 주요현안 이슈 주제발표’를 하기로 하는 등 변화를 시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는 기존의 경직되고 딱딱한 정례회의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기대되고 참여하고 싶은 정례회로 정착시키고 있다.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국악원 등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 해설이 있는 음악공연을 실시하고, 색소폰, 오카리나 등 각종 장기와 끼가 있는 직원과 동호회 회원들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매달 부시장실에서 실시하는 간부회의를 통해 직원들이 알아야 할 시정 주요 현안이슈를 주제 로 선정하고, 해당업무 책임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5분 정도 주제 발표하는 시간도 갖기로 했다.

2월 개최한 정례조회에서는 목포시립국악원 서광수 교수가 가야금에 대한 해설과 함께 가야금 연주를 시연하고, 직원들과 함께 진도아리랑을 합창하기도 했다.

또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정례회로 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엔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며 “매월 정례회를 통해 직원 상호간에 웃고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무안 장애인복지관 유튜브 부적정 사용 등 10건 적발

무안군은 13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결과 10여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점검에서 유튜브 부적정 사용, 복지관 감사 미 실시,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 부적정 등 모두 13건을 적발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 시설장(관장)이 추천하고 단체장이 임명해야 하는 데도 관장이 수년간 직접 위촉해오다 지적됐다.

무안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단법인 무안군 장애인협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관장은 장애인 협회장인 김도씨가 10년째 겸직하고 있다.

장애인협회장이 수년째 관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두 기관 단체 간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도 일고 있다.

이 같은 부적정 사례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은 무안군 측의 불실한 지도점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안군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경고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무안지역 거주 장애인은 7000여 명으로, 군은 이 복지관에 최근 3년간 23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단 신

전주시, 직원 사이버교육 과정 대폭 확대

전주시는 올해 직원들의 역량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자체 사이버교육과정을 대폭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사이버 위탁교육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해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전 직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시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직무·정보화·한자·외국어·제2외국어 등 5개 분야 300여 과정에 대해 3000여건의 교육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여기에 인문학 및 자격증 과정을 추가해 7개 분야 630여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태인면 종합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정읍시는 13일 태인면 소재 피향정 부근 근린공원조성, 수확정석의 길, 레포츠 시설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정비사업과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시는 올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착공한 뒤 오는 2016년 완공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생기시장은 “태인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단순히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지역에 활력을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반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지리산둘레권역 등 종합개발 20억 투자

남원시가 올해 20억원을 들여 보절면 천황봉권역과 주천면 지리산둘레권역 농촌마을을 종합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먼저 천황봉권역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태휴양 마을’ 조성을 목표로 9억6000여만원을 투자해 공동주차장, 마을쉼터, 체육시설,

소득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펼친다.

지리산둘레권역은 ‘삶의 느낌표를 찾아 떠나는 지리산둘레권역’을 목표로 주천면 4개 마을 1206ha에 11억여원을 들여 지리산둘레문화공간,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 등을 조성한다.

/남원=백성민기자 bs8787@

순창군, ‘아쿠아융복합 힐링사업’ 추진

순창군이 만성질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순창 아쿠아융복합 힐링사업(ACH)’ 추진에 나섰다.

강전산 온천과 나노버블 기술, 친환경 농산물, 발효식품 등을 활용해 순창하게 될 이 사업은 박근해 당선자의 전라북도 공약사업인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일환으로 마련됐다.

군은 지난달 14일 남원에서 열린 ‘전북도 동부권 6개시군 연석회의’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치유발리지 사업계획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귀농인 성공 정착 체계적 교육 실시 영광군

영광군은 13일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에는 기본소양, 영농기초, 현장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의 유망한 농업인을 멘토로 지정, 신규 귀농인에게 노하우도 전수할 방침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22일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61-350-4836)으로 하면 된다.

영광군은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창업지원비 1000만원, 주택수리비 500만원, 주택신축·구입 4000만원 융자(연 3%,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매섬 일출을 아시나요

해남군 송지면 땅골 선착장 앞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섬인 ‘매섬’ 일출이 14일부터 5일간 펼쳐진다. 땅골 일출 시작은 오전 7시 10분 전후로, 매섬 일출은 매년 2월과 10월 두차례 장관을 연출한다.

완도서 5월 해조류 음식 개발 경연대회

완도에서 해조류를 재료로 한 음식 개발 경연대회가 열린다.

조류 음식 개발, 해조류 소비 촉진 등 위해 오는 5월 4일 장보고 축제와 연계해 경연대회를 연다.

대회는 미리 온라인으로 ‘해조류 개발 음식 공모전’을 열어 출품 음식

을 심사, 20개 팀을 선발해 치른다. 대상 200만원, 최우수 100만원 등 20개 팀에 모두 100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전북

동과 안되는 수도계량기 설치

정읍시·수자원공사, 취약계층 무료 보급

겨울 한파에도 깨지지 않는 수도계량기가 전북 정읍지역에 차례로 설치된다.

정읍시와 수자원공사는 겨울철 흔히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안 깨지는 수도계량기’를 취약 계층부터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1개당 2만7000원인 ‘동파방지 수도계량기’는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계량기 내부에 고무판을 넣어 강추위에도 깨지지나 팽창하지 않는다.

실제 이번 겨울 ‘안 깨지는 계량기’로 무료 교체해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4천여 가구에서 계량기 동파사고는 1건도 없었다.

반면 기존 수도계량기의 동파사고는 100여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 설치하는 상수도계량기를 모두 동파방지 계량기를 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도 내구연한(8년)이 지난 계량기를 순차적으로 동파방지용으로 바꿔줄 계획이다.

현재 정읍시에는 3만8000여개의 수도계량기가 있고 이중 1만여 개가 올해 내구연한(8년)이 넘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초·중·고교 급식비 200원씩 일괄 인상

전북 도내 초·중등학교 급식비가 올해 일괄적으로 200원 인상된다.

도교육청은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2013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초등은 한끼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중·고는 2700원에서 2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민간위탁 중인 호남중과 호남고 등 2

개 학교를 직영으로 돌렸다. 이로써 도내 초·중등학교중 여전히 위탁운영을 하는 곳은 전주 예술중·고, 상산고 등 3곳만 남았다.

교육청은 올해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준수를 의무화하고 납품업체를 분기별로 평가해 누적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김완주 지사 오늘부터 14개 시·군 ‘민생투어’

김완주 전북지사가 14일부터 남원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민생투어에 돌입한다.

김 지사는 예년과는 달리 이번 민생투어에서 시·군 관계자보다는 농촌과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농민과 생산직원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해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투어 기간 내내 25인승 버스를 이용해 전통시장, 나들가게, 협동조합, 마을기업, 귀농귀촌 가구 등 일차리 창출과 민생 관련 현상 83개소를 직접 방문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조선왕조실록 후기도 복본화

전주시, 태조~명종 이어 선조~철종까지 한지로 실록 완성

국보 제151호인 조선왕조실록 후반부(선조~철종)도 전통 한지에 본뜬 복본(復本)으로 만들어진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올해부터 3년간 18억원을 들여 선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실록 588책을 원본과 똑같이 만드는 복본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려 7만9000여쪽을 한지로 옮기는 작업이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규장각과 국가기록원에 있는 나머지 선조~철종에 이르는 실록을 복원해야 최종 완성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복본이 만들어지면 조선왕조실록 전체가 처음으로 한지를 통해 재탄생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최근 4년 동안 전주시 경기전 내 전주사고(全州史庫)에 보관돼 있던 태조에서 명종까지의 조선왕조실록 614책, 5만3102면(쪽)을 원본(原本)과 같은 부분(副本)으로 만들었다.

실록 전반부 복본에 사용된 한지는 당시 한지의 품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작을 맡은 한지 장인들이 납품된 한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한지의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후반부 복본화 사업도 단순히 내용 전달 중심의 영인 인쇄가 아니라 실록 자체가 가진 한지의 물성을 그대로 재현하고 현대 첨단인쇄기술을 접목해 원본과 동일성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표지와 속지의 열목과 바란 상태까지 그대로 재현, 600여년 전에 제작된 고서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한다.

제작 과정도 50가지가 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일반 책에 비해 2~3배의 정성을 쏟는다.

김형조 전주시 한스타일관광과장은 “선조에서 철종까지를 복본화함으로써 25대 472년에 이르는 조선왕조실록 복원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완성된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 복본(復本)의 손실에 대비해 유물보전에 가입했다. 복본은 1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고창장학숙’ 설명회

(재)고창군 장학재단(이사장 이강수)은 13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고창장학숙’ 입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주시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고창장학숙은 수도

권 대학에 재학중인 고창출신 학생들의 기숙사로, 오는 23일 56명이 입사한다.

(고창군 제공)